

##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혜경<sup>1\*</sup>

<sup>1</sup>강원대학교 간호학과

### Predictors of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according to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in Female College Students

Haekyung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경험군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검증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용성형을 추구하는 여대생을 상담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54명으로 K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의 여대생으로 편의표출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254명의 여학생 중 성형경험이 없는 비경험군 여학생이 142명(55.9%), 성형경험이 있는 경험군 여학생은 112명(44.1%)이었다.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의 자아존중감, 신체상(외모지향,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성형수술태도(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사회적 동기, 개인내적인 동기) 및 미용성형욕구를 비교한 결과 미용성형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았고, 사회적동기도 더 높았으나, 미용성형욕구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이 경험군보다 더 높았다.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미용성형 비경험군을 분석한 결과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beta = .46, p < .001$ )와 신체이미지 중 신체만족도( $\beta = -.23, p < .05$ )가 영향을 주는 변수이었으며, 미용성형욕구를 23.0% 설명하였다. 미용성형 경험군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beta = .47, p < .001$ )로서 미용성형욕구를 20.0%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미용성형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미용성형을 추구하는 여대생을 상담 시 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ich predictors influenced the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according to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in female college studen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used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mpleted by 254 subjects. Data was analyzed with t-test and regress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eptance and social motivation of cosmetic surgery and the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in the future between the two groups. Body area satisfaction and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the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in the non-experienced group.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for the experienced group was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need to different approaches to discuss or council for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according to individual cosmetic surgery experience.

**Key Words** :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Corresponding Author : Haekyung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33-250-8881 email:leehek@kangwon.ac.kr

Received November 28, 2012

Revised (1st December 28, 2012, 2nd January 4, 2013, 3rd January 9, 2013)

Accepted January 10, 201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증대되었고, 언론매체와 잡지 등에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많아지면서 성형수술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제 성형수술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가 발표한 2009년 성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성형건수는 세계 7위이며, 인구 1000명당 0.77명이 성형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1].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미용성형 수술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제 성형 수술은 기존의 치료적 개념이 아닌 외모를 가꾸기 위한 미용의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는 자아의 확장과 매력 추구를 넘어 적극적인 운명 개척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2].

성인 남녀 319명을 대상으로 미래에 성형수술을 할 가망성을 예측하는 변수를 연구한 결과 수술경험 유무가 중요변수라고 하였으며[3], 미용성형수술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등이라고 보고하였다[4-8].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말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능력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한가 혹은 불만족한가의 정도를 말한다[9]. 10세 이상의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군, 계획이 있거나 희망하는 군, 계획이 없는 비희망군으로 나누어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비희망군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아 자아존중감과 성형수술여부와의 관계를 보고하였고[10], 자아존중감이 상승하면 신체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며, 개선된 신체이미지는 외모와 관련된 부담감을 줄여준다고 하였다[11]. 그러므로 간호사나 의료인은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성형수술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mental image)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로서 다차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12]. 주요한 경험적 지표는 자기

신체에 대한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행동적 측면이라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신체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유방성형에 관심이 있어 의사와 상담을 한 여성 30명과 유방성형에 관심이 없는 여성 30명의 외모지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유방성형에 관심있는 여성들의 외모지향 점수가 더 높았고, 자신의 유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신체이미지가 성형수술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13,14].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외모평가)이 자기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할수록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열등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5]. 여대생 559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성형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본 결과 외모지향, 신체 만족도가 성형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15].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는 성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이나 자아향상을 위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써 Henderson-King과 Henderson-King (2005)은 성형태도를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사회적동기와 개인내적 동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16].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란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을 한 방법으로 허용하는 정도를 말하며, 미용성형수술을 받아들이는 동기에는 사회적 동기와 개인내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였다. 남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미용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묻은 결과 54.0%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응답하였고, 수술 동기는 외모의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17].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와 관계있는 변수는 신체 이미지 중 외모지향과 신체만족이라고 하였고,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15].

요사이 미용성형이란 눈, 코 등 신체의 변형을 초래하는 부위의 시술과 함께 접제거, 필러, 박피, 보톡스 등 넓은 의미의 성형도 미용성형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1]. 우리나라 여대생 2041명 중 25%인 490명이 성형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경험자 중 약 80%인 404명은 또 하고 싶다고 하였다[18]. 현재 성형을 하지 않은 여대생 중에서 성형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성형을 경험한 여대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성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형을 통해서라도 좋은 외모를 갖기 원하며 성형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든다고 하였다[19]. 이

렇게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관대해지고 있고, 현재 여대생의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는 미래 성형수술 관심과 실천에 영향을 미쳐 성형에 대한 열기에 더해 조기성형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성형수술을 단순히 외모를 아름답게 추구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보다는 외모를 향상시켜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미용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 후 긍정적인 효과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무분별하게 받게 하고 이러한 일시적 심리적 정신적 효과는 단지 외모를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20,21],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감소시킬 대안적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였다[19].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경험군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검증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무리한 미용성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신체적결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획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하고, 각 군의 미용성형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구체적 목적은 첫째,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에 따라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 신체만족), 성형태도(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사회적동기와 개인내적 동기), 미용성형욕구가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둘째,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미용성형 욕구를 예측하는 변수를 파악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K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상자는 편의표출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분석된 여학생은

254명이었다. 대상자에게 국제성형수술학회의 연간통계자료 보고 시 제공되는 미용성형 종류 13가지 중 경험한 것을 체크하도록 한 후, 이들 항목 중 하나도 체크하지 않은 대상자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 체크한 대상자는 미용성형군으로 분류하였다. 총 254명중 미용성형 비경험군은 142명(55.9%), 미용성형 경험군은 112명(44.1%)이었다.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 군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대상자수를 결정하기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5]. 효과크기( $f^2=.22$ ), 검정력=.93, 유의수준=.05 독립변수 7개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표본수를 G\*Power 3.0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한 결과 80명이 계산되어 미용성형 비경험군 142명, 미용성형 경험군 112명으로 대상자 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 2.3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에 대한 교육을 마친 조사원 10명이 여대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의실, 도서관, 학생휴게실 등에서 연구목적, 비밀유지, 철회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에게서 수집하였다. 조사 시 대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보장, 거부권, 그 밖의 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내용을 준수하였고, 설문지 응답에는 약 10분 내지 15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총 26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8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5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 2.4 연구도구

### 2.4.1 신체이미지

Brown 등(1990)이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MBSRQ)[12]를 Cho와 Koh (2001)가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서 신체적 이미지를 감정적 차원(affective aspect)과 인지적/행동적 차원(cognitive/behavioral aspect)의 두 차원으로 보았다[22].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신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평가를 의미하며, 외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와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두 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모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로서 총 5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뜻하며, 얼굴, 머리, 하체, 상체, 몸무게, 키, 전체적 외모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신체이미지의 인지

적/행동적 차원은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심, 중요성을 의미하는 외모지향성(appearance orientation)에 관한 문항으로 얼마나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열중하며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신체적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총 10문항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와 Koh (2001)의 연구에서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7, .72, .89이었으며[22], 본 연구에서는 .83, .68, .82이었다.

#### 2.4.2 자아존중감

Rosenberg 등(1995)의 자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가치 혹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관한 6문항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다[9].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 2.4.3 성형태도

Henderson-King과 Henderson-King(2005)의 성형태도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16]. 이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15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가 분석을 실행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바틀렛 (Bartlett) 검정을 시행하였다. Kaiser-Meyer-Olkin (KMO)과 Bartlett's 값이 0.78(Chi-square=1295.75,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었다[23]. 요인분석은 직교회전(varimax method)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시행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변량의 60.3%를 설명하였다.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0.4보다 큰 문항을 추출한 결과 2문항이 제거되었고, 제 1요인 5문항(받아들이는 정도), 제 2요인 5문항(사회적 동기), 제 3요인 3문항(개인내적 동기)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에는 나는 '언젠가는 성형수술을 할 것이다',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할 것이다' 등이 포함되었고 제 2요인에는 '남에게 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성형수술은 직장을 갖기 위해 혹은 결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제 3요인에는 '나는 성형수술을 한다면 남들에게 몇몇하게 알릴 것이다', '자기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되었다. Henderson-King과 Henderson-King(2005)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는 .88, .88, .88이었으며[16], 본 연구에서는 .89, .77, .76 이었다.

#### 2.4.3 미용성형욕구

미용성형욕구는 자기의 모습 중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고 미래에 하고 싶은 부위를 의미한다. 국제성형수술학회에서는 눈, 코 등 신체의 변형을 초래하는 부위의 시술과 함께 점제거, 필러, 박피, 보톡스 등 넓은 의미의 성형도 미용성형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국제성형수술학회의 연간통계자료 보고 시 제공되는 미용성형 종류 13가지를 제시하고 미래에 성형하고 싶은 수술을 체크하도록 하여 미용성형욕구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13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가 분석을 실행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바틀렛 검정을 시행하였다. KMO와 Bartlett's 값이 0.81(Chi-square=526.49,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었다[23]. 요인분석은 직교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변량의 63.6%를 설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이 0.4보다 작은 문항은 없어서 13문항을 모두 분석하였다. 요인1에는 쌍꺼풀 수술, 코수술, 피부성형 등이 포함되었고, 요인2에는 유방수술, 얼굴윤곽수술, 지방흡입수술 등, 제 3요인에는 키 확대, 반영구화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6이었다.

#### 2.4.3 미용성형 경험 유무

미용성형 경험 유무는 미용성형욕구에서 사용한 항목과 같은 13항목으로 이중 이미 경험을 한 미용성형수술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13항목 중 하나도 체크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에 포함되었으며 하나 이상 체크한 대상자는 미용성형 경험군에 포함되었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경험군에 따라 변수간의 차이는 t-test를 하였다.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군에 따라 미용성형욕구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의 일반적 특성 및 미용성형특성

분석된 254명의 여대생 중 미용성형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142명으로 55.9%이었고, 미용성형 수술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112명으로 44.1%이었다.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경험군의 학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미용성형 경험군에서 고학년 여대생이 많았다(Table 1). 미용성형 비경험군 142명 중에서 141명(99.3%)이 미래에 미용성형을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하고 싶은 종류는 치아미백, 피부성형, 라식수술, 치아교정 순이었으며, 미용성형 경험군에서는 112명 중 100명(89.3%)이 미래에 미용성형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성형을 하고 싶은 종류는 치아미백, 피부성형, 라식수술, 필러, 보톡스, 주름제거술 이었다(Table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on-experienced Group and the Experienced Group with Cosmetic Surgery (N=2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Exp.G (n=142)	Exp. G (n=112)	X <sup>2</sup> or t	p
		n(%) or M±SD	n(%) or M±SD		
Educational level	Freshman	63 (73.3)	23 (26.3)	16.67 *	<.001
	Sophomore	45 (21.9)	56 (19.1)		
	Junior	32 (28.4)	30 (33.0)		
	Senior	2 (23.1)	3 (39.6)		
Age		22.0 ±2.4	23.4 ±2.1	-6.29	<.001

\* Fisher's exact test; Non-Exp. G.=Non-Experienced Group with Cosmetic Surgery; Exp.G. =Experienced Group with Cosmetic Surgery

[Table 2] Types of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in the Future between the Non-experienced Group and the Experienced Group with Cosmetic Surgery (N=254)

Categories	Non-Exp. G. (n=142)	Exp. G. (n=112)
Do not wish to undergo surgery	1	12
Semipermanent make-ups	53	35
Double eyelid plasty	49	24
Filler, Botox, Wrinkle remove surgery	55	49
Rhinoplasty	57	45
Orthodontic treatment	63	29
Teeth whitening	92	60
Dermatoplasty(chemical peels, skin care, hair treatment)	87	60
Breast surgery (breast augmentation, breast reduction)	21	24
Facial contouring surgery(forehead, chin)	48	42
Lipoplasty (abdomen, arms, legs)	53	27
Overall height increase	28	16
Hair implants	23	23
Lasik, Lasek surgery	83	56

### 3.2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의 제 변수 차이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에 따라 제 변수의 통계적 차이를 본 결과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t=-2.471, p=.014$ ), 사회적동기( $t=-2.583, p=.010$ ), 미용성형욕구( $t=2.054, p=.041$ )에서 차이를 보여, 미용성형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았고, 사회적동기도 더 높았으나, 미용성형욕구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이 경험군보다 더 높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s between the Non-experienced Group and the Experienced Group with Cosmetic Surgery (N=254)

Variables		Non-Exp. G. (n=142)	Exp. G. (n=112)	t	p
		M±SD	M±SD		
Self-esteem		19.3 (2.6)	19.1 (2.7)	.599	.550
Body Image	Appearance evaluation	12.6 (2.5)	12.6 (2.6)	-.065	.950
	Appearance orientation	28.8 (4.0)	29.2 (4.2)	-.573	.570
	Body area satisfaction	16.8 (2.8)	17.3 (3.0)	-1.407	.161
Attitude about cosmetic surgery	Acceptance	13.2 (3.2)	14.2 (3.0)	-2.471	.014
	Social motivation	15.0(1.8)	15.6 (1.8)	-2.583	.010
	Intrapersonal motivation	8.3(1.6)	8.0(1.5)	1.608	.109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in the future		5.2(3.0)	4.4(3.0)	2.054	.041

### 3.3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미용성형 경험군 각각의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신체상(외모지향,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성형수술태도(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사회적 동기, 개인내적인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미용성형 비경험군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04-.48$ ) 상관계수가 .80미만으로 나타나 예측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6.83, p<.05$ ). 공차한계는 .64-.83으로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3-1.64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미용성형 비경험군의 자료는 회귀모형 분석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23]. 미용성형 경험군에서도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02-.70$ )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예측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보였고,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F=4.32, p<.05$ ). 공차한계는 .45-.86으로 .10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2-2.20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미용성형 경험군의 자료도 회귀모형 분석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23].

미용성형 비경험군을 회귀 분석한 결과 미용성형욕구를 23.0% 설명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beta=.46, p<.001$ )와 신체이미지 중 신체만족도( $\beta=-.23, p<.05$ )이었다. 미용성형 경험군을 회귀 분석한 결과 미용성형욕구를 20.0% 설명하였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beta=.47, p<.001$ )이었다(Table 4).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of the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in the Future between the Two Groups

Predictive variables	Non-exp. G. (n=142)		Exp. G. (n=112)	
	$\beta$	t	$\beta$	t
Self-esteem	.05	.56	-.04	-.35
Appearance evaluation	.07	.68	.05	.37
Appearance orientation	.06	.68	.04	.42
Body area satisfaction	-.23	-2.61*	.01	.11
Acceptance	.46	5.29**	.47	4.86**
Social motivation	-.03	-.40	-.01	-.11
Intrapersonal motivation	-.04	-.48	-.06	-.74
Adj.R <sup>2</sup> (p)	0.23 <.001		0.20 <.001	

\*  $p<.05$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 254명 중 미용성형을 경험한 여대생은 112명(44.1%)으로서 우리나라 여대생 2041명 중 25%인 490명이 성형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보다 미용성형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미용성형이 점점 증가하며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8]. 미용성형 경험군의 학년 및 나이가 비경험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 여대생에서 취업이나 사회진출을 앞두고 성형에 대한 고려와 희망정도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19].

미용성형 비경험군에게 성형을 희망하는가를 물은 결과 142명 중 1명을 제외한 141명(99.3%)이 성형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미용성형 경험군에서는 112명 중 100명(89.3%)이 다시 미용성형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Choi 와 Kim (2009) 보고에서는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여대생의 80%가 성형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성형 유경험자에서도 80%가 또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형수술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향후 잠정적인 미용성형 시술 예정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는데[18], 본 연구 결과는 미용성형 비경험군, 경험군 모두에서 Choi 와 Kim (2009)의 조사보다 미래에 성형을 더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형수술이 더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8]. 미용성형을 경험한 경우 이후의 성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성형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성형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해진다고 하였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에서 99.3%, 미용성형 경험군에서 89.3%가 미용성형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형을 경험하였든 하지 않았든 두군 모두에서 성형수술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형수술이라는 방법을 쉽게 찾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형을 경험하였든 하지 않았든 여대생 모두를 대상으로 미용성형의 부작용, 수술 후 장애나 중독 등을 포함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절실함을 보여 주었다.

미용성형 비경험군과 경험군의 성형태도(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사회적 동기, 개인내적동기)와 미용성형욕구를 비교한 결과 성형에 대한 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사회적 동기, 미용성형욕구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성형경험이 있는 직업여성과 성형경험이 없는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성형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성형에 대한 전체 인식과 성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24]를 보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성형에 대한 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두 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세에서 55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형을 원치 않는군, 성형을 원하는군, 성형을 하기로 결정한 군, 이미 성형을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BMI(body mass index), 연령, 결혼 상태를 공변량으로 하여 성형태도를 비교한 결과 성형을 원하지 않는 군에서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가장 낮았고, 성형을 하기로 결정한 군과 성형을 한 군에서 가장 높게 성형을 받아들였다[8]. 본 연구에서도 성형 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사회적 동기 점수가 미용성형 경험군이 미용성형 비경험군보다 높고, 성형에 대한 관심(성형 필요성 포함)과 성형에 대한 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25] 미용성형 경험군에서 미래에 실제로 미용성형을 실천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러므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 시 성형경험 여대생과

무경험 여대생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미용성형욕구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이 미용성형 경험군보다 높아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을 원하는 정도가 더 높다[20]고 보고한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성형수술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후회하는 응답자도 있다고 보고된 결과[26]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는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용성형 비경험자가 경험자보다 더 성형수술욕구가 높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른 이유로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에게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미용성형욕구를 신체에서 하고 싶은 곳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미용성형을 하고 싶은 정도가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성형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차이가 없어, 직장여성의 성형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24]. 그러나 성형수술군, 성형수술희망군, 비희망군을 비교하여 비희망군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보고[10]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의 미용성형 비경험군에서 1명을 제외한 141명(99.3%)이 성형을 하고 싶다고 대답하여 결과적으로 비희망군은 없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 신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차이가 없어 성형수술군, 성형수술희망군, 비희망군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10]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성형을 원치 않는군, 성형을 원하는군, 성형을 하기로 결정한 군, 이미 성형을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외모평가와 외모지향을 비교한 결과 성형을 원치 않는 군에서 외모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성형을 원하는 군의 외모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다. 외모지향 점수는 성형을 원하지 않는 군에서 가장 낮았고, 성형을 경험한 군에서 가장 높았다고 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8].

미용성형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외모지향,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성형태도가 미용성형욕구(의도 혹은 관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5,27,28]. 본 연구에서 신체이미지 중 신체만족도,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미용성형 비경험군의 미용성형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왜곡된 신체기준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본인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는 신체를 갖기 위하여 미용성형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신체

불만족은 성형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용성형을 원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전문가를 통해 신체 기준에 대한 건강한 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미용성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미용성형 비경험군에서는 신체만족도,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만이 미용성형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같은 변수라 하더라도 측정도구가 다르며, 성형태도를 포함하여 측정된 연구에서도 성형태도를 성형을 권유받은 적이 있느냐와 성형한 사람을 어느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형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과 함께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미용성형 경험군에서는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만이 미용성형욕구를 예측하는 변수이었다. von Soest 등(2005)은 성형수술을 한 사람에서 외모평가, 외모지향, 성형한 사람을 알고 있음, 성형권유가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8]. 성형을 경험한 집단에서 외모를 더 중요시 한다고 한 결과[19]를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게 건강하고 자연적인 신체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외모보다 바른 마음과 자연스러운 신체를 중요시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미용성형 비경험군에서는 신체만족도와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미용성형 경험군에서는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교육접근을 다르게 하여야 효율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용성형 경험군이든 비경험군이든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겠다. 태도 변화를 위한 한 방법으로 사회 전체에서의 획일화된 외모 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여성의 바람직한 건강한 이미지를 메스컴이나 인터넷에서 제시하도록 지원하여야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성형 후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성형 후 만족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결과[21]도 있으므로 성형수술을 쉽고 누구나 하는 수술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용성형을 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성형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성

형수술을 방지하여야 하겠다.

## 5. 결론 및 제언

미용성형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았고, 사회적동기도 더 높았으나, 미용성형욕구는 미용성형 비경험군이 경험군보다 더 높았다. 미용성형 비경험군에서는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 신체이미지 중 신체만족도가 미용성형욕구를 23.0% 설명하였고, 미용성형 경험군에서는 성형태도 중 성형을 받아들이는 정도만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미용성형욕구를 20.0%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여성의 외모를 상품으로 여기는 사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몸을 사랑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으며, 상담 시 어떤 요인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효과적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요인과 미용성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References

[1]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09). *Countries by total number of procedures*, from [http://www.ISAPSOrg/uploads/news\\_pdf/Analysis\\_ISAPS\\_Survey2009.pdf](http://www.ISAPSOrg/uploads/news_pdf/Analysis_ISAPS_Survey2009.pdf)

[2] Jeon, H. J., & Chung, M. S. (201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esteem on cosmetic surge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Cosmetics*, 16(3), 734-741.

[3] Swami, V., Arteché, A., Chamorro-Premuzic, T., Furnham, A., Stieger, S., Haubner, T., & Voracek, M. (2008). Looking good: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having cosmet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30, 211-218.  
DOI: <http://dx.doi.org/10.1007/s00238-007-0185-z>

[4] Javo, I. M., & Sørli, T. (2009).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among young Norwegian women: A population-based stud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24(6), 2142-2148.

DOI: <http://dx.doi.org/10.1097/PRS.0b013e3181bcf290>

[5] Lee, H. K. (2011). Factors influencing need for cosmetic surgery among high school girl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2), 126-136.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2.126>

[6] Lee, K., Lim, H. S., & Chang, K. S. (2006). Status of perceptions for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among university freshmen. *Dongguk Journal of Medicine*, 13(1), 27-36.

[7] Park, L. E. Calogero, R. M., Harwin, M. J., & DiRaddo, A. M. (2009). Predicting interest in cosmetic surgery: Interactive effects of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nd negative appearance comments. *Body Image*, 6, 186-193.  
DOI: <http://dx.doi.org/10.1016/j.bodyim.2009.02.003>

[8] von Soest, T., Kvalem, I. L., Skolleborg, K. C., & Roald, H. E. (2005). Psychosocial factors predicting the motivation to undergo cosmetic surgery.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17(1), 51-62.  
DOI: <http://dx.doi.org/10.1097/01.prs.0000194902.89912.fl>

[9]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DOI: <http://dx.doi.org/10.2307/2096350>

[10] Lee K. S. (2003). *A study on aesthetic plastic surgery, self-esteem and body image of some wo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11] Figueroa, G. (2003). Self-esteem and cosmetic surgery: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lastic Surgical Nursing*, 23(1), 21-24.

[12]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135-144.  
DOI: <http://dx.doi.org/10.1080/00223891.1990.9674053>

[13] Callaghan, G. M., Lopez, A., Wong, L., Northcross, J., & Anderson, K. R. (2011). Predicting consideration of cosmetic surgery in a college population: A continuum of body image disturbance and importance of coping strategies. *Body Image*, 8, 267-274.  
DOI: <http://dx.doi.org/10.1016/j.bodyim.2011.04.002>

[14] Sarwer, D. B., LaRossa, D., Bartlett, S. P., Low, D. W., Bucky, L. P., & Whitaker, L. A. (2003). Body image concerns of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12(1), 83-90.  
DOI: <http://dx.doi.org/10.1097/01.PRS.0000066005.07796.51>



- [15] Sarwer, D. B., Cash, T. F., Magee, L., Williams, E. F., Thompson, J. K., Roehrig, M., Tantleff-Dunn, S., Agliata, A. K., Wilfley, D. E., Amidon, A. D., Anderson, D. A., & Romanofski, M. (2005).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osmetic surgery: An investigation of experiences, attitudes and body image.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15(3), 931-938.  
DOI: <http://dx.doi.org/10.1097/01.PRS.0000153204.37065.D3>
- [16] Henderson-King, D., & Henderson-King, E. (2005).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 137-149.  
DOI: <http://dx.doi.org/10.1016/j.bodyim.2005.03.003>
- [17] Heo, S. Y., & Cheon, H. M. (2008). Interest in the appearances, cosmetic surgery and skin care practice by th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Beauty & Trichology*, 4(2), 183-190.
- [18] Choi, B. Y., & Kim, S. H. (2009, October 26). A survey of interesting in cosmetic surgery among 20s-30s women. *The Chosunilbo*, A p.3.
- [1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3). *The prevalence of diet and cosmetic surgery and influences on health in college female students*. 2003 Research Report.
- [20] Choi, M. H., & Kim, J. D. (2007). A study on feeling of women about aesthetic sense and aesthetic surgery according to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2), 547-566.
- [21] Cook, S. A., Rosser, R., & Salmon, P. (2006). Is cosmetic surgery an effective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 Aesthetic Surgery*, 59, 1133-1151.  
DOI: <http://dx.doi.org/10.1016/j.bjps.2006.03.047>
- [22] Cho, S. M., & Koh, A. R. (2001).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 [23] Kno, H. J. (1999). *Multivariate analysis using Korean SPSSWIN*. Seoul: Hyungsul Publishing Co.
- [24] Jung, J. K. (2007). *Influential factors for women workers' recognition of cosmetic surgery*. Unpublished master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25] Han, D. J., & Park, K. S. (2008). A study of external appearance management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Make-up and cosmetic surgery. *Journal of Korean Society Cosmetic*, 14(2), 622-632.
- [26] Yoo, Y. C., Lee, D. H., & Chang, C. H. (1994). A study of the attitude of patients undergoing aesthetic surger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21(3), 452-459.  
DOI: <http://dx.doi.org/10.1007/s11199-009-9625-5>
- [27] Gim, W. S., & Cho, O. K. (2009). Relationships among body-related values, body images and intention about cosmetic surgery in yoga teachers and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0(4), 611-632.
- [28] Markey, C. N., & Markey, P. M. (2009). Correlates of young women's interest in obtaining cosmetic surgery. *Sex Roles*, 61, 158-166.

이혜경(Haekyung Lee)

[정회원]



- 199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역할 획득, vagal tone